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육된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閉窩公 遺戒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東右, 秀東, 弘周,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64 희산빌딩 403호
전화 323-6223, 이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슬기와 인내로 障壁을 해치고

會長 廉 珍 泽

1997년 말까지만 해도 오늘의 위기 실상을 예견하거나 적극 대처 못 했음에도 어찌 그 책임이 타인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따져 볼일은 사람들이 흔히 국회의원들의 부정을 나무라고, 욕먹기 예사로운 교통순경, 세무공무원 심지어 촌지의 강요로 교권이 부패된다며 비난받는 많은 교사들. 다 우리들이 선출했고 우리가 나쁘게 길들여 놓고는 우리가 욕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너그럽게 마음을 비우고 편견 없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채찍해서 화합과 단결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96년 봄 大宗會長의 중책을 맡고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老軀에 채찍한지 벌써 2년

반의 세월이 흘러 별 成果 없이 내년 봄의 任期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가 분들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로 大宗會 運營基金의 增加로서 겨우 현실유지를 가능케 하고는 있으나 기대한 것보다는 너무나 成果가 미약한 점을 자책하면서 어려운 속에서 일가 분들이 화목하고 大宗會 모임에 참여해 오고 있는 誠意만으로도 自慰하며 한 가닥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히 전망하건대 앞으로의 우리 大宗會 運營도 종전과는 좀 다른 양상과 또 다른 각오가 요구된다고 믿어집니다. “大宗會 參여” 하면 곧 자신의 재정적 부담감으로 等式되어온 지난해들의 습관적 행사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자금을 마련하여 혁신적

인 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제들은 제한되어야 하겠고, 날로 하락되는 金利를 감안하여 얼마 안되는 基金의 利子를 효율적으로 긴축 절약하여 定例의 諸行事에도 내실을 생각하고 반면에 會員 전부의 보다 공고한 단결과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긴축과 현실유지를 목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정체한다는 것은 바로 퇴보라는 마음으로 소결음이라도 확실하고 무거운 행보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氣運을 마련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大宗會가 넉넉한 자산으로 장학금 등으로 후손을 교육하고 우리의 회관을 짓고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사우들을 빛나게 관리, 보전하며 폭 넓은 文化

事業은 못 할지라도 大宗會가 시작된 80년 이후 오늘까지의 課程을合理的으로 분석하고 반성하여 새 목표 설정을 위해 온갖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야 합니다.

全國 宗親會員의 실태를 면밀히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관습, 종교, 환경 등을 초월한 가치관으로 확대된 가정적 분위기로 단결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차원으로서 氏族으로 발전하여 조직사회에서의 호혜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그 효과가 우리문중 전가정에 직결되어 복지와 행복이 증진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끝으로 한 번 다시 일가분들 모든 가정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인내가 함께 해서 건강하고 행복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시고 家庭 여러분들께서도 無故하신지요.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生活에 어려움이 많은 요즘이라 힘이 드시지요.

요즘의 세태를 돌이켜 생각하면, 동남아를 비롯한 온 세계가 1930년의 대 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 하지 않는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계산에 밝은 재벌들, 많은 기업인들, 정치인, 언론기관들,

大宗會 소식

1. '98년 任員會 개최

'98년 2. 28일 11:00~13:30
간 대종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감사, 고문등 15명이 참석하
여 총회에 회부될 안건의 선
정과 대의원의 배정 등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또 강
화 유적관리위원회의 '98년
결산과 '98년 예산을 확정하
고, 총회와 향사 일정등을 합
의 결정하였다.

2. '98년 대의원 총회 개최

'98년 3. 14일 10:30~14:00
간 대종회 사무실에서 대의원
31명이 참석하여 '97년의 회
무보고와 相守감사의 감사보
고후 基金의 관리사항의 보고
를 마친 후 '97년 회계의 결
산 승인, '98년 예산의 확정,
任員보, 개선 안을 합의 결정
하였고, 나주소재 부동산이 '85.
6. 22부 대종회 소유로 등
기된 것을 '96. 2. 14부로 대
종회 승인없이 “파주염씨 충
경공문중”으로 소유권자 명의
변경한 건에 관해 광주 동은
회장의 설명과 사과가 있어
이 결과를 추인하고 나주 충
경서원에 관한 관리, 보존 등
제 업무를 광주, 나주종친회
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大宗會 任員

(1998. 3. 14 보개선)

고문 泰勳, 基奉, 在熙, 仁洙,
庚桓, 泰權, 普鉉

자문 公勤, 吉燮, 昌賢, 凤哲,
聖壽, 澤根, 在郁, 燉赫,
且祚, 圭昌

會長 珪澤

副會長 昌勳, 廷薰, 吉榮,
在均, 鍾建, 相顯,
東畧, 炳斗, 琦燮,
德洙, 洪燮, 宇權,
東鎮, 弘周, 洪太,
敏燮(도유사겸)

宗桓(상임이사겸)

理事 泰模, 東浩, 東右, 倣台,
學光, 權翊, 車澤, 東秀,
基瑢, 英哲, 三烈, 圭顯,
東元, 南燮, 正水, 燉鎬,
京根, 尚述, 韶浩, 相天,
賢植, 圭三, 秀一, 鍾洙,
東根, 文圭, 鍾顯

監事 命秀, 相守, 秀東

기타 소식

① 조선일보 '98. 8. 7자 15
면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海外에서 활동중인 한국인으
로 廉京洙(1949년생, 東亭公
20世) 사장이 프랑스 파리에
서 80년에 “엘리트 가방” 회
사를 창설하여 매년 400만불

이상의 매출고를 올려 진출회
사중 동 계통에서 제3위를 차
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
개되고 있다.

② 大宗會 理事였고, 전 대
전종친회장이던 伯均氏(享年
64, 20世)가 지병으로 '98. 5.
24에 대전자택에서 別世하였
다.

③ 수원 병무청장이던 漢鎬
氏가 '98. 7. 1부로 부산 병
무청장으로 전보되었다. ('98.
9. 16부 이사관 승진)

④ 노동청 근로감독관직에
있던 東元氏가 정년 퇴임한
후 '98년 봄 매현 친목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⑤ 文化 탐방 전문강사 염
상균(41세, 수원·팔달구 인계
동)氏는 그 동안 뿌리깊은 나
무, 샘이 깊은 물, 문화탐방
그리고 터사랑 등 모임에서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 탐방
등 역사기행의 안내로 명성이
높아 '96. 10월부터는 교육원
의 강사로도 활약하게 되었다
한다.

(조선일보 '98. 10. 2 소개)

⑥ 지난 10월 20일 14시부
터 19시까지 사이 세종문화회
관 대회의실에설 한국 씨족
총 연합회가 주최로 전국 씨

족 각 문중의 대표들과 유림
인사 300여명이 모여 동성동
본 근친혼법 개정안(8촌이 넘
는 동성 동본의 혼인은 허용
한다는지)의 국회처리를 저지
키 위한 모임이 있어 大宗會
에서는 珪澤 회장이 참석하였
(총무 吉順氏)

- 戊寅 初寒에 -

다.

⑦ 1998. 6월 대구경북종친
회의 임원이 개선되어 새 회
장으로 秀一씨가 선임되었다.

‘97년 회계 결산

수입지부

(단위: 원)

'97년 예 산	종 목	'97년 결 산
507,829	'97년 이 출 금	507,829
7,500,000	'97년기금이자수익(전도)	10,000,000
1,000,000	종 보 간 행 현 성	1,000,000
500,000	종 보 광 고 수 익	300,000
500,000	현 성 총 당	0
10,007,829	계	11,807,829

* 종보간행 현성……규택회장 100만원

지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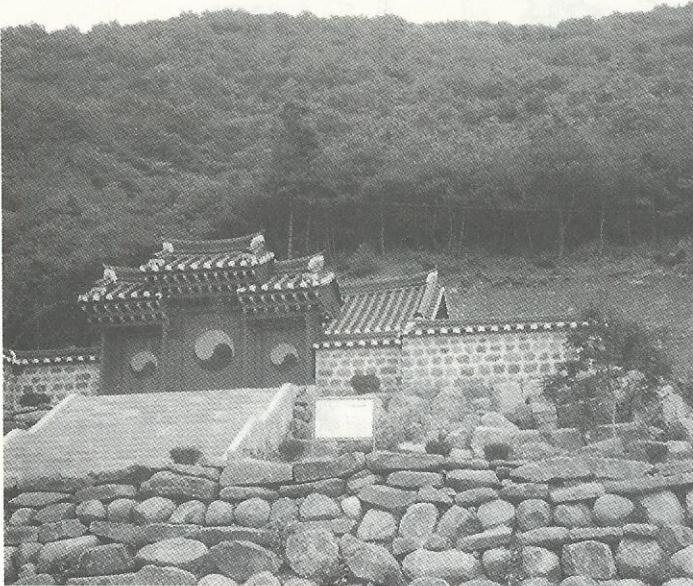
(단위: 원)

항 목	'97예산	'97결산	증 감	비 고
전화요금	400,000	367,640	-32,360	
사 무 비	500,000	245,800	-254,200	
출 장 비	500,000	223,000	-277,000	
회 의 비	1,500,000	1,108,500	-391,500	
향 촉 대	1,300,000	1,300,000	0	
종보간행	1,800,000	1,696,350	-103,650	
경 조 비	500,000	302,340	-197,660	
거 마 비	2,400,000	2,400,000		
잡 비	1,000,000	1,948,150	+948,150	
예 비 비	107,829	0	-107,829	
계	10,007,829	9,592,680	-415,149	

* 잡비 추가지출은 강화 재산 등기비 등 지출.

* 수입 11,807,829 - 지출 9,592,680 = 잔고 2,215,149원

(2) 1998年 11月 6日(戊寅 陰 9月 18日)



— 水絃祠 이전 —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에 있던 水絃祠는 우리 門中에서 오래된 祠宇인바 땜 건설로 이 지역이 수몰됨에 廉仁善氏로부터 희사 받은 부근 林野 2,000평에 1997년 3월부터 宅地를 造成하고 祠堂과 부속건물 2동등을 건축(약 5억원 투자)하여 10월에 1차 완공되었다.

科舉에 의한 先祖님의 行蹟

高麗때의 科舉制度를 살펴 先祖님의 行蹟一部를 歷史書를 通해 고려대의 과거제도를 살펴 선조님의 行蹟일부를 확인코자 한다.

고려사 권73에 의하면 三國 이전에는 科舉制度가 없었고 太祖때에 學校는 있었으나 人材를 뽑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가 光宗9年(958년) 5月에 唐나라 제도를 많이 채택한 雙翼의 의견에 따라 인재를 뽑기 시작하였다. 學校로는 國子, 大學, 四門이 있었고 또 九齋學堂이 있었으며, 科舉에는 詩, 賦, 頌을 製述케 하여 進士를 뽑고 겸하여 儒學經傳을 시험치는 明經과 醫卜(의술과 복술)등의 과도 있었다.

國子監試는 進士試라고도

면전에서 통지서를 주었다. 또 試驗官과 合格者의 관계는 恩門이라하여 師父와 弟子의 관계가 恪別하였다. 고려사를 통해 각년의 과거기록 중廉門과 관계가 있는 해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仁宗24年(1146丙寅)에 李仁實이 지공거로 되고 崔誠이 동지공거로 되어 黃文富 등을 뽑았다.(1986年丙寅譜 부록에 의하면 이때 孝文公, 廉信若이 及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孫錄에는 기록이 없다. 별도 책 登科錄, 榜目에는 확인 못했다.)

明宗7年(1177) 4月, 樞密院副使 文克謙이 지공거로 判大府事廉信若 同知貢舉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崔基靜 등 35명, 明經과 4명에게 及第를

도 及第 - 榜目에서) 國子監試에 보면, 德宗初年(1032) 右拾遺이던 廉顯에게 명하여 鄭功志 등 60명을 뽑았다.

明宗3年(1173) 3月에 將作監廉信若이 詩, 賦 시험으로 金徵魏 등 28명과 十韻詩시험으로 李滋祐 등 78명을 뽑았다.

恭愍王 9年(1360) 知申事廉廷秀가 禹洪明 등 99人과 明經과 6명을 뽑았다.

付補試에 보면, 毅宗 12年(1160) 9月에 國子祭酒(從三品)廉直諒과 司業崔婁伯에게 명하여 尹敦敘 등 16명을 뽑았다.

이상은 고려사에서 拔萃(拔萃)한 기록으로서 登科榜目을 보았다면 각 及第者的 全般을 알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해

대종회 기금 관리사항

구 분	'97년 2월 14일	'98년 1월 5일 현재	비 고
大宗會	62,298,872원 전도금 10,000,000공제 52,298,872원 ※2차모금 5,600,000원중 180만 '96년 지출	전도금 지출 후 잔액 2,215,149원 56,691,977원 2차 모금액 중 98.3.5부 입금 45,548,729원 계 102,240,706원	+4,393,105 (8.5%)
영천 도선사 보전회	13,368,238원 전도 500,000원 12,868,238원	'97년 지출 50만원 13,949,169원	+1,080,931
강화유적 관리위원회	5,297,052원 200만·원 전도 3,297,052원	3,574,004원	+276,952

'98년 예산

수입지부

단위 : 원)

종 목	96년 예 산	97년 예 산
이 월 금	507,829	2,215,149
기금 이자 수익에서	7,500,000	8,300,000
종 보 간 행 현 성	1,000,000	1,000,000
종 보 광 고 수 익	500,000	500,000
현	500,000	
계	10,007,892	12,015,149

※ 전년비 + 2,007,257

※ 이월금 외 기금에서 1,000만원이 전도되었음.

지출지부

단위: 원)

항 목	'97 예산	'98년 예산
전 화 요 금	400,000	400,000
사 무 비	500,000	500,000
출 장 비	500,000	500,000
회 의 비	1,500,000	1,500,000
향 촉 대	1,300,000	1,300,000
종 보 간 행	1,800,000	1,800,000
경 조 비	500,000	1,000,000
거 마 비	2,400,000	3,600,000
잡 비 비	1,000,000	500,000
예 비 비	107,829	415,149
세 금	0	200,000
계	10,007,829	12,015,149

※ 사무실 난방, 청소, 집기 등 관리비와 부동산 세금 항목 신설

마에 德宗때에 처음으로 설치
하고 賦, 六韻, 10詩를 시험쳤
으며, 成均試 혹은 南省試, 舉
子試라고도 하였다.

付補試는 後進을 격려하기
위한 生員을 뽑아 벼슬에 나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毅宗元年에 처음 설치되고 詩,
武와 경서의 뜻(經義)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다.

科學에 應試할 수 있는 자
격은 五逆 五賊 不忠 不孝 樂
工이나 이들의 자손에게는 주
어지지 않았고, 科擧는 해마
다 혹은 한 해 건너 등 期間
이 정해져 있지 않고 定員數
도 없었으며, 應試者는 姓名
과 本貫 및 四親(父, 祖, 曾祖,
外祖)의 성명을 試院(과거를
관장하는 관청)에 제출하였으
며 시험관은 통상적으로 二府
(門下부, 密直司)에서 知貢擧
(시험관), 卿, 監에서 同知貢
擧(부시험관)을 1명씩 뽑았고,
考試官 혹은 都試驗官이라고
도 했는데 國子監試나 付補試
에서는 지공거 혹은 동지공거
로 하지 않고 각 1명씩만을
지정하였다. 대체 科擧를 통
하지 않고는 卿大夫라 할지라
도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으나,
숨은 인사의 추천이나 공신의
후손등에게는 特採하여 職을
주었는데 薦職이라 했다. 合
格은 시험관의 추천으로 王이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합格
者에게는 紅牌를 주어 합격증
으로 하였고 통지는 처음에는
王이 사신을 본가로 보내 하
도록 하였는데 후에는 王이

주었다.

高宗 2年(1215) 5月에 平章
事 崔洪胤이 지공거로 되고
左諫議大夫 朴玄圭가 동지공
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廉翊등 31인, 明經과 7인, 思
賜 5인에게 及第를 주었다.

恭愍王 6년(1357) 4月에 政
堂文學 李仁復이 지공거로 되
고 簽書樞密院事 金希祖가 동
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
데 廉興邦 등 33人을 及第시
켰다.(이때 廉廷秀도 及第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고려사
에는 기록이 없다. 榜目에
기확인)

恭愍王 23年(1374) 4月에
改堂文學 李茂芳이 지공거로
되고 密直副使 廉興邦이 동지
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王이 친히 시험을 쳐 金子粹
등 33인을 뽑아 12월에 及第
를 주었다.(이때 廉致和가 及
第) 祔王 6年(1357) 5月에 瑞
誠君 廉興邦이 지공거로 되고
密直使 朴形同이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李文和
등 33人과 明經과 6人에게 及
第를 주었다.

禡王 11年(1385) 4月에 瑞
成君 廉國寶가 지공거로 되고
敎堂文學 鄭夢周가 동지공거
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禹
共命 등 33人에게 及第를 주
었다.(이때 卞季良 及第) 禡王
2年(1386) 5月에 韓山府院君
李穡이 지공거로 되고 三司左
使 廉興邦이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孟思誠 등
33人을 及第시켰다.(이때 吉再

아쉽고 다만 科擧를 치른 해
先祖분들의 벼슬과 行蹟을 엿
보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으
며 이 후 고려사 이외의 역사
책에서나 文獻 등에서 이 부분
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싶
어 문중 일가분들의 提報를
기대하는 바이다.

(碧江)

축 결 혼

1. 강화사단의 관리와 매년
별초에 수고해 왔던 炫一
氏의 차남이 5. 13 강화읍
에서 결혼
 2. 강릉종친회의 東煥(염 한의
원장)의 장녀 다래양이 7.
6 서울에서 결혼
 3. 大宗會理事인 圭顯氏(보령
한의원장)의 장남 文善군이
9. 26 서울에서 결혼
 4. 전 大宗會 감사이고 現理
事인 鍾洙氏의 三男 봉걸
군이 10. 17 부산에서 결혼
 5. 大宗會 副會長인 弘周氏(오
주산업 대표)의 長男 起虎
군이 10. 23 서울에서 결혼
 6. 大宗會 副會長이며, 前 부
산종친회장이던 東鎮氏의
四男 기철군이 10.24 결혼

수원시의회 윤영위 원장

廉相天

수워 시의워(3선)

수원시 자아구 육저도

식약A/P 105-501

전화 0331-293-2037

宰相公의 冊文

우리 族譜 甲申譜에는 坡州 廉氏의 始祖로 “顯”字 조상 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 “刑明”始祖님으로 바로 잡는다.) “顯”字 조상님에 관한 사蹟으로는 孫錄에 있는

國子試之 額無定制 德宗初年 命右拾遺廉顯 鄭功志 等六十人(고려사 권 74 志 28) (국자감시는 定員이 없었고 덕종초년에 王命에 의해 廉顯이 鄭功志 등 60人을 뽑았다.)라는 內容과 德宗癸酉2년(1033년) 九月 癸亥 朔日에 以廉顯 為右輔闕(염현을 우보궐로 승급)의 記錄 뿐이다.

위 內容은 東史綱目 권七 辛未에 위 사실을 싣고 이 때 國子監試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賦와 六韻, 十韻詩로 치러지고 이 것을 進士試라고 했으며 뒤에 成均試 혹은 南省試로 하였다로 설명되고 있다.

이 외로는 “顯”字 조상님에 關한 事蹟이나 遺稿는 우리 門中 文獻에는 言及이 없었는데 東文選에 보면 다음과 같은 遺稿가 있다.

哀哉 謹言

- 정왕시책문- (염현)
—운운 애사왕신은 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을 올리나이다. 엎드려 듣자 오니 선을 취하여 시호를 올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나간 일을 표창하는 것이요, 두 글자로 정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전하는 것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것은 전고의 뜻뜻한 전장으로서 후손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 대 대행대왕께서 너그럽고 인한 것으로 신민을 통하여하시고 예지와 명철을 몸소 지녔습니다. 당제의 총명으로서 주왕의 조심함을 본 받았습니다. 자애와 검소를 보배로 여겼으니 열매는 취하고 꽃은 버리었으며 덕과 공을 세웠으며 남에게는 후하게 하고 자기 몸에는 박하게 하였습니다. 사유를 베풀자 잘 다스려졌고 오전을 펴자 능히 백성들이 좋았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하여 우리나라의 그물을 모두

(容惠)라 하고 묘호(廟號)는 정종(靖宗)이라 하며 능호(陵號)는 주능(周陵)이라 하나이다. 상로의 느낌은 천추에 때때로 생각하는 것을 감히 계을리 하오리까. 소목의 의례는 억년에 길이 종묘에 빛내리이다. 아, 삼가 말씀을 올리나이다.—

주지하다시피 東文選은 成宗 9년(成化 14년) 王命으로 徐居正(1424-1492) 등이 우리나라 古代로 부터의 저명한人士들의 文獻을 築集 1478년 2月에 完成하고 中宗 13년 7月에 申用濬 등이 補完한 총 154권여의 책이다. 여기 소개된 廉顯 선조님의 冊文은 고려 10대 王이신 靖宗(1034-1046)이 在位 12년만인 5月 丁酉日에 33歲의 나이로 돌아가시자 바로 先王의 謚을 廟號 陵號를 王命에 의해 지어 바치신 분이 “顯”字 선조님이셨다.

先王의 謚號를 지어바쳤다면 元老이시고 뛰어난 學者였음을 알 수 있다.

고도 했고 기본재가 미곡이기 에 米寶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宝는 이 후 구호사업을 위한 濟危宝, 救恤을 위한 濟危宝. 그리고 鐘閣의 유지를 위한 金鐘寶 佛敎經版의 彫造를 위한 經寶. 八關會의 경비 충당을 위한 八關寶 등 다양한 형태로 活用되었다. 宝가 公的團體성을 갖는데 반하여 民間모임으로서의 “契”는 會員 서로의 親睦과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交契한 것이다. 共同出資하여 基本金을 만들어 이를 活用하여 運營費用에 충당하는 것으로 요즘의 혼한 契모임의 定形이다.

鄉約은 향리에서의 住民이나 氏族의 약속으로 서로 돋고 격려해서 自治生活을 효율화한다는 모임으로 조선조 중엽 靜庵에 의해 시작되고 退溪의 禮安鄉約을 비롯하여 坡州, 西原, 海州등의 향약과 社倉계, 海州약속등이 있다. 이 鄉約의 原形은 宋나라때의 鹽田에 살던呂氏門中에서 鄉里의 住民을 교도하기 위한 약속으로 시작된呂氏鄉約은 德業相勸(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 권면하고) 過失 위한 편찬위원회의 현판식을 83년 5월에 광주에서 갖고 3년 4개월만인 1986년 10月에 配本이 시작될 때까지는 活動이 가장 활발했던 초기였다. 그 직후 편찬위원회의 마무리와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회원들 서로의 오해와 의견차이, 그리고 江華祀壇設立을 전후한 혼란기 후에는 大宗會로서는 空白期라 할 수 있는 無重力상태였다. 조직은 약화되고 기금은 전무상태였으니 活動이라야 面目뿐이었다. 萬事が 그러하듯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데는 단시일이었다. 이렇듯 여건에서 再建의 시동은 그야말로 微動의 시작이었고 또 오래 걸렸다. 大宗會運營을 위한 基金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과 이와 더불어 추진된 것이 永川산소의 정화였다. 이제 두 사업이 다 자리는 잡은 셈이다. 모금된 基金의 총액도 現金利 수준으로 그 利殖만으로는 大宗會의 年例經常費를 최소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나 점차 금리가 하락되는 추세인지라 그 마저 안심될 수 없고 永川의宰相公 산소 墓域에도 儲

靖王謚冊文 -廉顯-
云云哀嗣王臣諱 謹再拜稽首上言 伏聞節壹惠以易名 所以彰乎既往 定兩言而垂美 所以勸乎將來 伊前古之彝章 作後昆之懿範 伏惟大行大王 大寬仁御衆 睿哲在躬 以唐帝之聰明 周王之抑畏 寶慈寶儉 取其實而去其華 立德立功 厚於人而薄於已 張四維而時乂 數五典而克從 好生而殷網盡除 宥過而虞刑是恤 金科不濫 猶牢無繩繫之冤 玉燭常調 稼穡有稻梁之積 保兵強而食足 致海晏而河清 啓休運於熾昌 躍蒸民於富壽 奈何年踰一紀 天奪九齡 遽宣憑几之遺言 俾寵握樞之重務 謬將庸昧 獲忝纂承 合崇景饌之稱 用備追述之禮 謹遣某官某 奉玉冊上尊謚 日容惠 廟號曰請宗 陵號曰周 霜露之感 千秋敢怠於時思 昭穆之儀 億載永光於廟貌 鳴呼

없애고 과실을 용서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을 신중히 하였습니다. 금과를 남용하지 않으니 옥에는 원통한 죄수가 없었고 기후가 항시 조화되니 심고 거두는 것은 곡식 풍년이었습니다. 국사가 강하고 양식이 넉넉한 것을 보전하였고 바다가 편안하고 하수가 맑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운수를 번성하고 용창하도록 열어 놓았고 많은 백성을 부하고 수하는 경지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겨우 12년이 넘었는데 어찌하여 하늘이 90살을 넘지 못하게 하였는가. 갑자기 궤에 기대는 유명을 선포하여 나라 다스리는 중한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아름다운 칭호로 높이여 추모하는 예를 갖추나이다. 이제 모관모를 보내어 옥책을 받들어 시호를 올리기를 용해

고려사 등에는 “顯”字 조상 님에 대한 言及은 1031년초 右拾遺로 進士 60人을 뽑고 1033년 癸酉 九月 癸亥 朔日 에廉顯爲右輔闕(염현을 우보궐로 승진) 후 그 간에는 관계 記錄을 발견치 못하여 알 수 없으나 15년이 지난 1046년에 先王의 謚號를 지어

바쳤다면 그 후의 벼슬은 미루워 짐작할 수 밖에 없다.

늦기는 하였으나 우리 門中祖上님의 世稿로는 가장 오래된 내용인가 싶으니 일가분들이 참고하시고 옛 文獻은 물론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존하는 자료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발굴하기에 일가분들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宗桓記 -

第二의 창설

大宗會定款第2條에 보면大宗會設立目的이 명시되어 있다. 先祖崇奉과 宗族相互間의 親睦 그리고 地域社會와 國家民族에 貢獻한다는 旨로 大別된다. 너무一般的인 감이 있긴 하지만 요즘의 親睦契, 同窓會, 氏宗親會, 학술

연구모임 等에서 거의 共通되는 言辭이다. 마을단위이거나 타인과의 私設모임의 歷史는 오래 전부터 유래된다.

옛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寶” “契” “鄉約” 등으로 모여진 私設모임이 있었는데 “寶”는 한 목적을 위하여 基

本金을 마련하여 그 利殖으로서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일종의 財團으로서 고려 太祖 13년(930) 太祖가 西京에 갔다가 學校設立의 말을 듣고 倉穀百石을 하사하여 학사장여의 고정자본으로 시작되었다. 學業에 관한 것이기에 學寶라

相規(過失과 不善行을 規戒하며 禮俗相交(어른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며 경조사를 함께 도운다) 患難相恤(어려운 일에는 서로 구조한다) 등의 目的을 主로 한 것으로 조선조에 있었던 향약들은 이를 기초로 增損한 朱子증손향약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모임에서 發展하며 그 명맥을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會員 전체가 요구하는 절실한 사업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大宗會가 發足할 초기에는 위 두 측면에서의 과제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처음 시작되는 宗親會의 모임이기에 의욕과 관심이 높았고 더욱이 해방후 초기인 1954년도의 甲午大同譜 이후 약30년이 경과된 時點으로 보다 완벽한 거시족적인 새 大同譜의 발간을 宗人 모두가 갈구하고 있을 때였다. 때문에 우선의 사업목표가 뚜렷했고 비록 미리 준비된 자원은 없었어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은 믿을 수 있는 기반이었기에 지금의 大宗會가 1980년말에 發足되고 첫 사업인 大同譜 발간을

葬된 묘의 이장을 비롯하여 환경정화등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이다.

閭巷間의 말로 第二의 創設期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當面 과제는 大宗會가主管하는 享祀에는 自力으로 奉行하게 하며 現實條理에 맞게 지금까지의 經驗을 바탕으로 運營에 不適合한 부분의 定款도 정비하고 全國各地의 會員 住居실태를 體系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조직을 擴大하여 이를 活用하여 온 나라안이 어려운 與件속이나마 大宗會가 物心兩面으로 安定되어서 일가분들이 단결을 굳게하여 지혜와 뜻을 모아 장학금도 지급하며 人才도 養成하고 우리의 회관도 지어 先祖님의 유고와 관련 文獻도 모아 정리해서 宗人們이 언제나 공랑케 마련하고 새로운 유적과 文獻을 찾아 연구, 흔보하는 文化事業도 하는 등 現實的이고도 後世에 남을 새 課業을 設定하고 推進해야 할 것이다.

(碧江)

濟翁書以未
萬寧仰慰且領弟一依
私就政事每日付送云意
吉依教分付
計矣餘留不備謹謝禮
生梯臣再拜
遺稿와 事蹟의 保全

先祖분들의 遺蹟을 알고 싶어 族譜에서의 文獻이나 世稿 등을 읽으면 歷史書나 偉人傳을 보는 느낌과는 또 다른 感舊之懷에 사로잡힌다.

三首中 “漢江春暖柳微斜”(따스한 봄날 한강가 벼드나무가 지 너울거리고)라는 句節이 있다. 이 詩文의 原典格인 “遁村先生 雜誌”에서와 우리

忠敬公의 書翰

얼마전 興士團 출판부에서 發行한(1988. 9.10) 筆史大觀(國民意識正立思想教養本)이란 책에서 中始祖 이신 忠敬公의 筆蹟을 발견하고 그 반가움과 설레임을 어찌 表現 할 바 몰랐다. 내용은 글자 얼마되지 않은 간단한 書翰文이었으나 글이 짧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성균관대학교의 임형택교수(한문교육과)께 번역을 부탁하고 우선 책에서 해당부분을 복사해서 이웃 宗人們에게 보냈다.

內容을 보면

謹拜審此來

靜體萬寧仰慰且領弟一依

昨狀

幸私就政事每日付送云意
吉依教分付

爲計矣餘留不備謹謝禮

生梯臣再拜

(삼가 절하고 살피옵건대 이

즈음 靜體(상대방에 대한 존칭)가 만번 안녕하시다니 위안이 되며 또 칭송합니다. 弟(자신에 대한 칭호)는 한결같이 지난날의 모양과 다름없으니 다행인가 합니다. 政事(인사관계의 일)에 있어서는 매일 부쳐 보낸다 하니 意吉(사람 이름인 듯)의 가르침에 따라 분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남겨두고 갖추어 쓰지 못합니다. 삼가인사 드립니다. 生梯臣재배)

- 성대 임형택교수 역 -

忠敬公께서 선배나 혹은 친구(명불상)분께 보낸 短文의 서한으로서 안부를 묻고 보내준 일(구체적 내용 불상)에 대하여서는 가르침에 따라 분부할 생각이라는 요지로서 내용은 간결하나 상대방에게 禮를 다 하고 할 말은 빠트리지 않는 筆致를 엿보게 하는 글

이다. 더욱이 忠敬公에 關한 行蹟은 歷史書 등을 통해 여러 곳에서 그活動하신 면모를 보게 하지만 당신께서 직접 쓰신 글로서는 報恩元驥驛에서 七老宰相이 唱和한 詩一首뿐인데 이번의 書翰文은 비록 日當時에 주고 받은 편지의 일부이긴해도 우리 門中으로서는 貴重한 자료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흔적들이 오랜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다 누구에 의해 알리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지며 앞으로 宗人 모두가 살펴볼 것이다. 筆史大觀의 다음쪽(570쪽)에 이 책의 編註人인 峨山 丁奎琰 寫註라 하고 忠敬公의 略傳만 기술하였을 뿐 이 서한문에 대한 來曆과 사유에 관한 說明은 없다.

(大宗會 理事 南燮)

나自身의 存在 根源과 直結되는 親近感 때문일 것이다. 祖上님의 遺稿를 읽다보면 나는 어떠한 意識속에서 緣由되었는가도 알고 또 어떻게 繼承할 것인가의 指標도 顯出되니 이 보다 더한 얻음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로서 過去의 文獻들을 잘 保存해야 한다는 責任感이 더욱 무거워지고 우리 지금의 世代에서 한번더 지금까지 傳해오는 記錄들의 事實을 확인도 해 보고 一般文獻과 비교도 하면서 우리 門中에 알려지지 않은 새 사실들을 發見한다면 가히 錦上添花일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門中에서의 文獻이 世間의 一般文獻內容과 差異가 있을 때 더욱이 一般文獻이 社會全般에서 믿을 만 하다고 定評이 있을 때에는 어느 内容을 믿을 것이며, 또 後世에게는 어떻게 傳할 것인가를 決定하기란 매우 混亂스럽다.

한 예를 든다면 廣州李氏의 中始祖 遷村先生(1327~1387)께서 二世祖인 清江께 준 詩

門中의 最初의 族譜인 甲申譜(1704)에는 위 句節 그대로 인데 曲城廉氏 世稿(1908)와 1986년 發行된 族譜(最近譜)에는 “僕”자가 “歛”字로 되어 있다. 글자 한 자 가지고 뭐 그리 야단이냐 할지도 모르나 詩 全體의 内容으로 보아도 歎美辭인 歉(의)나 醉舞貌인 僕(기)字는 또 다른 맛이다. 문제는 왜 글자가 변경되어 傳]해지는가에 있다.(이럴 때 변경된 사유라도 說明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한 예로 二世祖이신 菊坡公의 벼슬 중 우리 門中의 族譜 孫錄에는 거의가 다 처음부터 “推忠保節協贊功臣”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忠敬公神道碑銘에서는 國寶의 벼슬공신명은 “推忠輔理功臣”으로 되어있다. “保節協贊”과 “輔理”는 뜻도 다르고 格도 차이가 있다. 또 菊坡公의 品階를 孫錄에는 “三重大匡”인데 碑銘에는 “重大匡”이다. 고려사 文散階에 보면 恭愍王 11년 이후 正一品上은 壁土三韓三重大匡, 正一品下는 三重大

匡 從一品은 重大匡, 正二品은 匡靖大夫이던 것이 18년에는 正一品上은 特進輔國三重大匡下는 特進三重大匡 從一品上은 三重大匡 下는 重大匡 正二品上은 先祿大夫 下는 崇祿大夫라 했고 공민왕 21년에도 등급의 이름을 고쳤는데 알 수 없다 하였으나 三重大匡과 重大匡은 品階가 틀리다는 点은 확실하다.

忠敬公 神道碑重整記에 이르기를 公의 巍勳盛業과 王命에 의해 當代의 文章家 牧隱의 撰述하고 또 名筆인 韓修가 碑文을 썼으니 功勳과 作品의 内容과 形相이 가히 “三絕”로서 後世에 傳하여야 할 일이라 하였으니 碑文의 内容에는 事實性은勿論當時의 法度나 慣習에도 한 점의 하자나 빈틈이 없다고 할 것인데 族譜 孫錄이나 요즘의 視文에서나 새로 세워진 碑文에는 “都僉議”이라는 알 수 없는 内容의 官職名이 첨가되고 있다. 이런 内容은 속히 門中에서 結論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享祀를 할 때 그 祝文에는 그 분이 돌아가시기 直前까지의一生동안 가장 榮光스럽고 가장 높은 벼슬이름을 쓰는 것이 古來로 부터의 常例일진데 神道碑銘에 있는 二世祖 세분의 官職은 忠敬公이 돌아가신 해인 1382년 壬戌 당시의 벼슬이고 二世祖 세분이 돌아가신 해는 1388년 戊辰으로 6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 동안 菊坡公의 官職에 관한 言及은 発견되지 못 했으니 碑銘대로 傳해진다 해도 가당하다 할 것이다, 고려사 등 믿을만한 文獻에 보면 1388년 당시 東亭公은 三司左使(從一品)이고 清江公은 大司憲(正二品)으로 승급되어 있었다.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본다면 東亭公의 品階는 匡靖大夫(正二品)가 아니고 重大匡(寧邊安心寺 指空, 懶翁舍利石鐘碑文 - 1384년 건립에서도 重大匡이었음)이어야 하고 清江公도 光祿이나 崇祿大夫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傳해지고 있다 는 内容들은 비록 一般文獻에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筆者 個人的 意見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内容들을 모아 宗人們의 多數決로 결정지를 課題는 아니다. 종전까지의 族譜보다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보는 最近의 族譜가 發行되고서도 잘못된 부분이나 補完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 大宗會 次元에서 관심 있는 宗人们이 모여서 그러한 意見들을 수집하고 종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研究해서 변경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그 근거와 근거자료를 명시해서 보다 事實의이고 品格높은 우리 門中の 族譜로도 되고 先祖们들의 遺稿를 바르게 後孫들에게 傳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提言하는 바이다.

(汙青 秀東 記)

保寧韓醫院

院長廉圭顯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97-7

전화 362-7407, 362-1013

廉韓醫院

會長廉鴻武

院長廉賢植

부산시 중구 동광동 4가 21-1
전화 (051) 469-5543, 463-9266

진명대중탕

廉相福

수원시 장안군 울전동 358-2

목욕탕 0331-297-5227

자택 0331-293-1173

東村神經精神科醫院

의학박사廉宇權

대구시 동구 검사동 990-169

전화 병원 983-2345, 5432

자택 985-2345

雪冤錄

(無實의 陋名은 씻겨지는 것)

歷史란 무엇인가?

人類社會의 過去에 있어서의 變遷과 興亡盛衰의 過程 또는 그 記錄 個人的 經歷 및 어떤 事物이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變化와 자취를 記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歷史觀을 가지고 歷史를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향후 人類社會에 미치는 功過가 결정된다 하겠다. 그 아무리 暴君治下의 暴政과 虐殺이 자행되어 歷史를 曲筆 한다 하더라도 全體國民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故로 한 時代가 지나가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일들이 하나 하나 口口相傳하여 言無足이 行千里로 全國 방방곡곡 메아리 치는 것이다. 우리의 俗談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眞實이란 時間이 지나면 가리워졌던 구름이 거쳐 푸른 하늘을 보듯이 하나 하나 밝혀지는 것이며, 歷史의 峻嚴한 審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高麗末 우리 先祖님

지나쳤습니다. 林廉은 비록 公物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 사사로이 하지 안했는데도 이들은 王人을 죽여서 사사로이 했고 또 이 분의 목숨을 빼았고 財物을 거두었습니다. 水青文이란 것은 林廉 두 사람이 水青의 나무로서 채찍질하고 매질하며 公文을 嚴하게 세워 百姓의 財物을 奪取했다는 것이요, 鷹獵案이란 것은 林廉 두 사람이 사냥을 할 때에 民衆을 恐動시키어 公然하게 그百姓의 것을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 심하다는 것은 당시의 權貴들이 林과廉보다 더욱 심했으나 비록 林廉이라 하더라도 어찌 良心이 없겠습니까?

王人이란 車原頫를 말한 것입니다. 다만 當時に 連坐된 十餘人的 財物을 一時의 權貴들이 公然하게 奪取하고 占據했던 것이니 그 사람을 말한다면 林廉의 소행보다 심하다는 것이요, 이리로 오면 榮華스럽고 저리로 가면 辱이 되는 것인데 實意는 趙浚 鄭道傳, 咸

다. 得忠은 林堅味의 繼孫인데 清白했기 때문에 죽음을 免하고 자리를 便安히 하였으며 勿忘은 廉興邦의 親孫인데 簡直했기 때문에 罪에서 벗어나서 중이 되었습니다. 世勢라는 것은 一國의 權威한 子孫들의 代代로 이어온 權勢라는 것입니다. 崔泓과 金桂蘭 두 사람은 芳碩과 같은 때의 人物인데 이 두 사람이 車原頫가 不豫 하다는 뜻으로 才國에 建卞했던 것입니다. 權貴한 者는 한갓 險凶한 가운데서 사사로운 怨讐 갚음만 할 뿐 아니라 元氣를 끊어 버리는 일도 더욱 심했으니 仁人義士가 그 奸人的 肝膽을 씹고자 하지 아니 하겠는가를 말한 것입니다.

臣 成三問이 下敎를 받들어 註釋합니다.

記라는 것은 일의 是非를 記錄하여 懲惡 勸善하는 大義입니다. 또 하나의 記 가운데 註 아래에 某가 註釋했다고 달지 않은 것은 朴彭年이 自註한 것입니다. 다만 記 가운데 實意는 趙浚 鄭道傳, 咸

國朝(朝鮮)에 있어서는 逆人이었기 때문에 麗氏를 지키다가 貴로써 滅門을 當하였으며 趙浚과 趙胖은 國朝의 順人이며 麗氏의 逆臣이기 때문에 國朝를 為하다가 賊으로써一身의 顯達이 되었습니다. 또 鄭夢周과 崔瑩은 몸을 滄波에 던지고 死生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權近과 李穡은 中間에 서서 變動되어 가는 것을 觀望하면서 事功을 구차스럽게 얻으려 하였으니 저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臣 崔恒, 臣 申叔舟, 臣 成三問 等이 下敎를 받들어 註釋하고 臣 李石亭이 前에 下敎를 받든 것으로 因하여 다만 註釋을 결단 지었습니다.

忠誠을 다하다가 義로써 죽은 것은 鄭夢周의 節概요, 곧 게 살다가 그릇된 것으로써 죽은 것은 車原頫의 바른 길입니다. 뜻한 바는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였으니 어찌 한 때에 邪細한 私議로 하는 것이 옳겠으며 어찌 萬古에 正人の 公論에 굽히겠습니까? 權近과 李穡은 亡國에서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임금을 두고 이리로 달

려왔고 鄭夢周와 崔瑩은 建國의 기둥으로써 그 節概를 안고 저리로 달아났으니 어찌 어진이의 착한 마음이었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과 땅의 빛이 차례로 일어난 것입니다. 정몽주는 死節의 臣이요 차원부는 避遁의 선비이니 뜻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權近은 麗朝로부터 달려온 사람이니 몸이 嫌疑에 義해 있고 생각을 구차하게 남을 圖謀하는데 두었으니 저를 어찌 足한다고 보겠습니까? 이색 또한 善竹橋의 怨讐인데도 뜻에 구차스러움이 많았으니 실로 講責을 免치 못할 것입니다. 素絲란 것은 권근을 비유한 것입니다.

臣 崔恒, 臣 成三問 等이 下敎를 받들어 註釋 합니다. 上으로써 雲巖先生의 雪冤錄에 登載되어 있는 記文과 註釋의一部分을 拔萃하여 今般 宗報에 옮기는 뜻은 이 記事內容을 읽고 賢宗才 한 분이라도 高麗末 易姓革命史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無上の 기쁨으로 생각하겠습 니다.

敏燮(大宗會 都有司)

崔瑩장군의 後悔

들과 같이 被禍되어 滅族의 危難에 처했다가 天佑神助로 살아남은 후손에 依하여 世宗 端宗兩朝의 傳教를 받아 集賢殿의 여러 學士와 當時 쟁쟁한 名臣들의 下敎로 撰述한 雪冤錄에 登載되어 있는一部 分을 읊기고자 한다.

車原頬 字는 思平 號는 雲巖 本貫은 延安으로, 高麗恭愍王朝에 文科及第하여 여러 벼슬을 歷任하고 諫議大夫에 이르렀다. 當代 鄭夢周 李穡과 더불어 名聲을 떨치던 性理學者로서 政治가 素亂해지자 黃海道 平山 水雲巖洞에 隱居했다. 李成桂가 주는 功臣錄券을 拒絕했고 이어 正言判典農寺事等의 벼슬을 辭退하고 隱居하던 中松原에서 河峯等이 보낸 刺客에게 暗殺當했고 家族들은 모두 無慘이 殺害되었다. 當時 高麗에 忠誠하던 社門洞 七十二인의 한 분으로서 雲巖先生의 雪冤錄에 이르기를 水青의 文과 鷹獵의 案은 비록 林廉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람을 말한다면 비슷하면서 차이가 심하였고 비록 趙浚과 趙胖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論한다면 외람되고 또

게 바꾼다면 이것이 심한 것 이 된다는 것입니다.

臣 崔恒, 臣 申叔舟, 臣 成三問等이 下敎를 받들어 註釋합니다.

萬若 祥瑞롭고 駕가 符合하며 하늘 뜻에 應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르신 神聖(李成桂)의 運이 아니었다라면 여기에 豺(匈奴)처럼 도망가고 오랑캐처럼 罪 받으며 가지가 꺾기고 줄기가 없어지는(枝幹夷滅-三族이 滅한다는 뜻) 林廉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得忠이 免해진 것은 多幸하고 또 多幸한 일이었고勿忘이 벗어난 것은 多幸 가운데서도 多幸한 일이었으니 威權이 있는 곳에 世勢도 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崔泓이 先聖이 계신 자리에서 建白(말씀을 삼는 일)하지 아니하고 桂蘭이 政堂안에서 힘써 分別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無辜하고 清白한 이가 검은 흙탕물에 빠졌을 것이요, 아마도 滄浪에 是非가 섞기는 길을 取했을 것입니다. 黑과 白이 서로 쏘게 되는 것은 다른 緣故가 있어서가 아니고 是非가 거꾸로 던져져서 實在의 底事와 緣干 되는 것입니다

傳霖 河峯 等은 모두 高麗의 遺孽로써 그 門에서 跋扈한 者들 인데 芳碩을 除去하고 車原頬를 去勢시킨 것은 그 是非의 뿌리를 다 除去하려는 것이었고 芳碩이 비록 除去된다 하더라도 車原頬가 그대로 存在한다면 後患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에 있을 것을 河峯이 잘 알았기 때문에 永久히 禍根을 끊고 그 後患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車康二氏의 親族을 災殃의 根本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或은 良民을 다스린다는 名目을 稱託하고 或은 謹謗의 이름을 들며 或은 武斷等 三條의 律를 指目하여 官奴로 流配시키고 妻子眷屬을 籍沒할 때에 거짓 文書를 만들어 戶籍안에 붙이고 祖와 考의 名字를 欺罔하여 書啓를 올리어 비록 莊憲大王의 特達하신 밝음으로써 하시더라도 어떻게 일의 實意를 알고 委曲하게 비추며 거듭 밝히고 奸을 찾아 내며 邪를 헤쳐내어 그 寛抑함을 헤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大抵 그 要點을 總括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이 비록 林廉을 말하지마는 任廉은 麗氏에 있어서는 順臣이었고

家族등 1천여명을 대 虐殺하는데 이때 菊坡 東亭 清江公을 비롯하여 忠敬公의 사위인 洪徵, 任獻과 그 아들 三兄弟, 李竦, 菊坡公의 사위 安祖同, 東亭公의 사위 李徽 尹璵등이 함께 禍를 당한다. 이어서 記錄하기를 瑩과 成桂가 東亭公의 소행을 분하게 여겨 同心協力하여 禍王을 설득하여 그들을 없애버리니 나라사람들이 기뻐하여 길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고려사에 이 부분을 밀하기를 “이들은 모두 탐욕이 극에 달하고 치부하여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家財를 몰수하려 갔을 때 任獻의 집에서 곡식 한 섬의 저장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비롯하여 李朝때의 學者の 대반은 後日 李成桂의 易姓革命을 타당성 있게 하려고 하였지만 『東史綱目』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을 잊고 있다. “林堅味, 廉興邦의 罪는 탐욕스러움이 법도가 없어 죽여야 하나 亂뒷면에

성추문과 부정부패

(道徳觀의 재정립을 위해)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성추문사건은 드디어 상원 소위원회에서 탄핵소추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본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결의가 통과되자면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미국의 여론은 아주 냉담하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통치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인가 보다.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력에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젊은 여성과 난잡한 성적행위를 벌여도 그건 별로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미국인들의 상식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수신재가(修身齊家) 연후에야 평천하(平天下)할 자격이 있다는 아시아의 윤리잣대로는 말이 안 된다. 공인(公人)의 섹스 문제는 사생활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이중의 모럴을 상식으로 삼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인권 간섭을 그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의 행실이 禽獸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도 혹독한 비판을 모면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이 미국 윤리의 이중 잣대가 또 한 번 노출되었다. 여론조사, 혹은 여론재판이

앞면에서
賊에 비해보면 차이가 있으니 그 괴수만을 베는 것이 옳다. 崔瑩이 주살을 자행하여 착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 함께 죽고 또 처자를 죽여 집에는 씨가 없게 하였으니 不仁이 어찌 그다지 甚했던 말인가. 崔瑩은 배우지 못하고 지모가 없어 大體가 어둡고 거칠고 포악함이 이와 같으니 취할 것이 무엇이라” 또 綱目에서 洪聖民은 이렇게 적었다. “고

민주주의의 운용수단으로 발전한 미국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섹스 추문사건은 클린턴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20대)은 결혼 후 다른 여자들과 성 관계가 복잡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케네디와 존슨은 백악관으로 많은 여성을 끌어들여 성추문을 일으켰다. 이 두 대통령이 클린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중에 난잡했던 섹스 스캔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퇴임후에 폭로된 것이 다를 뿐이다.

정치지도자라는 공인의 사생활이 문제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바르고 곧아야 한다는 덕목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예외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되어 왔다. 그런데 클린턴의 경우 소문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고 본인이 검찰에 진술한 테이프가 그대로 전국에 녹화 방영된 마당에서도 그의 잘못에 대한 추궁을 적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것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밖으로 드러나면 간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달콤한 로맨스로 간직될 수도 있다는 그 차이는 실로 미세한 것이다. 그러기에 바르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웠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다. 그러기에 이 덕목이 남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공인에게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판사가 변호사의 뇌물을 받고 집권당의 실세들이 재벌의 뇌물을 받고도 드러나면 그것은 정치헌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고,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에서 뇌물을 받고, 등기부 등본을 떼는 데도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제 때 받아볼 수가 없고, 법을 올바르게 다룬다는 사법부의 창구에서도 뇌물이 오가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 뇌물을 주어야만 조그만 일이라도 매끄럽게 처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어느 하루도 크고 작은 부정부

루아침에 뿌리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탄식만 계속하면서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식의 속담을 제 편리한 데로 만 해석하면서 세월만 죽이고 있다.

아무리 연옥(煉獄)처럼 견디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사는 맛이 있고 오늘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희망이 있는 내일이 없고서야 생존만 질질 끌고 가는 짐승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하루도 어김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봇물 속에 부정부패의 사례 속에서도 의연히 면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공직자 모두를 하나같이 물들여 버리기에는 아직 부정부패의 마수(魔手)가 짧고 마력(魔力)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공직자의 소신 압도적으로 많고도 크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물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더러운 물에 오염된 것이라고

려의 國運이 용성치 못하고 조정 臣下가 서로 모함하였는데 李仁任은 禍를 세운 罪로 林廉은 李仁任과 黨을 함께 한 죄로 3인이 제거되자마자 禍王과 崔瑩이 함께 죽어갔다. 당시 士大夫가 時議와 틀리는 자는 반드시 3人으로 구실을 삼아 모함하였다. 李穡과 禹玄寶 부자 같은 자는 王氏를 심복하였는데도 禍와 昌을 원조하고 林廉과 함께 黨을 하였다고 罪를 주었으니 史家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책에 의거하여 그 자취를 탐구하고 당시 형세로써 해야리면 향배가 자연 가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 아 興邦의 아버지 廉悌臣은 고려조의 어진宰相이었는데 죽은 뒤 7년 만에 그 가족이 설령 興邦이 탐욕 방자하였다해도 천하에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結句하면서도 『東史綱目』보다 앞선 『星湖僕說』(李灝지음)에서의 글을 引用하고 있다. 즉, “國朝에 崔恒, 申叔再, 李石亭 등이 教旨를 받들어 撰註하기를 鄭夢周, 崔瑩은 滄海에 몸을 맡기고 死生을 들보지 않는 자이고 權近, 李穡은 中立하여 사태를 보아

로 같은 날에 崔瑩이 侍中, 李成桂가 守侍中 李穡이 判三司事が 되고 4月에 遼東征伐을 위해 精兵 38,800여명을 모아 出陣하였다가 李成桂의 威化島回軍으로 시작되는 革命의 行步는 急進展하여 바로 6月에 崔瑩을 유배하였다가 禍王과 함께 죽게 된다.(威化島回軍 前後의 經緯는 正史에 있다) 여기서는 崔瑩將軍이 죽으면서 했던 말을 읊기고자 한다.

“공은 언제나 林堅味와 廉興邦등을 죽이고 또 구宗族을 몰사한 것이 平生동안 잊지못할 지나친 처사이고 또 惡業이었다. 하나 나는 탐욕만은 없었으니 내가 죽은 후 내 묘분에 풀이 나면 탐욕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풀이 나지 않으면 탐욕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묘는 高陽에 있는데 무덤이 이제껏 어찌 벌거숭이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묘를 赤墳이라 부른다고 成倪이 쓴 傭齋叢話에 실려있다.

(碧江)

당한 선에서 마무리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여론이 가닥을 잡아나간다는 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사람을 돌로 쳐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닐 테이다. 그랬다가는 미국의 대외 인권외교라는 것을 지탱해 줄 버팀목이 혼들릴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의 체계 중의 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된 점이 안타깝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법부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일으키는 추문(醜聞)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뇌물 반기로 드러난 부정부패요, 여자관계에서 일으킨 섹스 스캔들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추문은 모두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이 알지 않으면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 하나를 믿고 양심을 배반하고 죄책감을 얹 누르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여행을 바라고 욕망을 채워 버린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몸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이 없지 않다.

폐의 사례가 대중매체에 기사로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이다. 부정부패의 사례가 그나마 하나 하나 보도된다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反面教師)의 사례가 되어야 하고 개선과 시정의 의지 표현이요, 언젠가는 부정부패가 없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조짐이라고 보는 낙관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여론 때문에 정부도 이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전환의 출발이란 점에서 긍정할 만한 일이다. 부정부패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쯤 모를 리 없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부정부패는 있어 왔고 이는 하

믿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믿고 살다보면 어느 날엔가 부정부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실천가치로 굳어져 부정 사례 뉴스에서 줄어드는 날일 반드시 오고야 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 볼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도 결코 손해 봤다는 낭패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염기용

(단국대 강사·출판잡지론)

法務士廉昌勳

사무실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빌딩 202호
전화 753-3930, 755-1081
FAX 776-9104
자택 0342-703-9720

光州地方 法務士會 會長
坡州廉氏 光州宗門 會長

法務士廉東璽

광주시 동구 궁동 35-5
전화 062-227-3177, 7800
자택 062-267-7707

東邦海運株式會社

代表理事廉德洙
부산·중구 중앙동 4가 78-7
전화 463-8484~7

廉門과 梅花 (柳川祠를 정화하면서)

紙面에서나 生活주변에서 “廉”字를 보면 유난히도 관심이 모여지는 것은 우리 門中 일가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것은 廉氏가 稀姓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우리 先祖분의 人事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梅花나 菊花에 對해서도 애착을 각별히 느끼게 될 것이다.

中始祖님의 號가 “梅軒”이고 二世祖의 號가 “菊坡”이기 때문이다. 두 분의 號에서 보듯 “추녀 끝에 매화꽃이 있는 家庭”의 분위기나 “국화꽃 피는 언덕에 자리한 집”을 생각하면 風致의 性向을 느낄 것만 같다. 이른 봄 모든 꽃이 잠 잘 때 殘雪을 헤치고 은은한 香氣 풍기면서 첫 花信을 알리는 梅花나 늦은 가을 百花가 시들어도 찬서리 맞고 香氣 드높은 菊花의 자태는 가히 花中の 선비요 貴公子이다.

우리 門中 梅軒世稿에서 유난히도 曲城府의 梅花에 關한 詩句가 많음을 본다.

그 詩中에서 梅花의 韵致가 넘치는 句節들을 例擧하면 聞道梅花已半開

獨愛黃昏枝上月
更逢南極老人星
(고운 매화꽃 정자에 활짝 피니, 중국 매화의 명소가 생 각되며, 황흔에 나뭇가지에 걸린 달이 남극노인성을 다시 만난 듯)

梅花意動臘前天
開到春分秀氣今
(섣달부터 매화꽃 필 듯 하 더니, 춘분절에는 수려한 기운 완연하구나)

이렇게 曲城府의 梅花는 壽와 富, 벼슬과 德望의 상징인 양 유명하였으니 梅花는 가히 廉門의 상징인가도 싶다.

廉門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님을 모시고 歲祀에 參禮하고 省墓를 하며 자란 뼈가 늙어 지금에 와서 까지 여러 곳 先祖분의 享祀에 참여하는 生活로 이어지는 자신을 생각하면 이 또한 宿命인 듯도 하다. 特히 退隱堂公의 墓所와 柳川祠에 대한 그 동안의 作業에 골몰하고 焦燥했던 마음이 무난히 役事

를 마감한 지금에 와서回想하면 무엇과도 比할 바 없는 보람을 느끼는 것 또한 宗事이기 때문일 것이다.

석에 새겨졌네. 나라에 효자와 충신 없으면 나라 기우나니 충신의 참 마음 하늘도 안다오.)

- 四忠閣重修 -

祀閣建茲云幾歲
風磨雨洗下恒新
士林與齋重修了
五柳長青萬古春

(乙丑 6月)

(四忠閣 세워진지 몇 해가 흘렀는고 모진 비바람에 셧기 어 달코 달아 사림과 후손이 함께 중수하니 길이 길이 푸르게 이리지리)

- 墓所淨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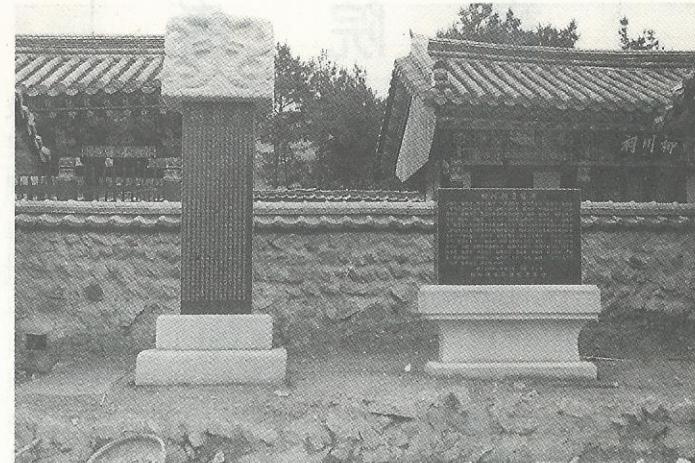
萬水千山回起處
四忠體魄永年安
官方修墓遂成願
繼述祖勳心不閑

(辛未 7月)

(만수천산이 휘도라 모이는 곳. 넷 충신의 혼백기리 편히 잠들고 나라에서도 이 곳 돌보아 선조님 뜻이오니 한 마음 놓이네.)

- 祠誌出刊 -

蔽天雲霧惟神助
大海殉身死亦輕
經數百年祠誌纂
四忠節義千秋明



千年을 이을 友誼

서울工大 같은 機械工學科의 同期인 圓實 李鍾灝氏는 學校卒業後 지금까지 막역한 친구로 지내왔지만 일찍이 實業界에 進出하여 現代重工業副社長을 後任하는 등 社會活動相이 顯著하였고 나이도 위인이라 友誼에 더한 兄으로서의 情感을 받아 왔던 사이다.

廣州李氏인 李兄으로부터 지난 6月初 의외로 다정한 편지 한장을 받았다. 당신의 中始祖 되시는 遁村先生의 遺稿를 보던 중 우연히도 廉氏의 先祖분들에게 보낸 詩句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훌륭하신 先祖를 모신 내가 친구인 것이 자랑스럽다했고

어 찾아가지 못하니 꽃가지 하나 꺾어 산가에라도 보내 주구려)

漢江春暖柳微斜
或掉孤舟或命車
共道帝鄉無限好
不如携幼早還家

(따스한 봄날 한강에 벼들 가지 춤추면 혹은 외로운 배 저어보고 혹은 화려한 차도 타며 모두들 서울이 한 없이 좋다고 하지만 아이 데리고 일찍이 전원에 돌아온만 못하리)

- 寄廉東亭 -

(염동정에게 부치다)
功名十載竟何成
病起江濱白髮生

冰姿瀟灑映瑤臺

(듣자니 매화가 벌써 빙
나 피어서 맑고 깨끗한 자태
요대에 빛나고)

臘月年年梅藥開

況今春色望前回

(매년 설달이면 매화피는데
금년엔 보름이나 앞당겼네)

天教梅藥雪中開

先遺陽和井底回

有脚春風曲城府

暗香疎影滿金盃

(하늘이 매화를 눈 속에 피
게 하여 따스한 기운은 우물
밑을 돌아 봄바람 공성부에
불어 그윽한 향기 성긴 그림
자 금배에 가득 찬네)

雪中梅信依然在

只恨樽前笑不來

(눈 속의 매화소식 예전 같
지만 단지 술잔 앞에 미색 없
어 한이로세)

永雪前頭錦作堆

暗香濃艷巧相陪

(빙설앞에 화려한 꽃 쌓이
고 그윽한 향기 아름다운 자
태 서로 어울려)

梅花燦爛照山亭

大庾蘿浮眼底青

柳川祠의 諸役事를 할 때마
다 느꼈던 心懷를 적어본 拙
작의 詩句는 門中の 遺蹟保全
은 勿論 人材養成을 위한 獎
學事業등 意慾된 課題가 아직
도 너무 많은 時點에서 일가
분들의 分발을 더욱 촉구하는
바람에서 부기해 본다.

- 墓所 '全南道文化財指定' -

我邦亂極壬辰歲

幸賴烈忠社稷傳

國定公墳文化寶

先生墓域得基金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려
울 때 다행히도 충신, 열사
등 사직을 보전했네. 나라에
서 공의 산소를 문화재로 지
정하니 선생의 묘역이 길이
잘 보전되리라.)

(戊午 10月)

-神道碑 및 四忠殉義碑 건립-

四公殉國壬辰亂

神道碑并節義碑

無孝無忠傾社稷

円哀惟有天翁知

(辛酉 5月)

(네 분의 충신이 임진란에
순국하여 그 공과 절의의 비

(癸酉 6月)

(구름, 안개 덮혀 막아 하늘
이 도우고 몸 바쳐 나라 위해
바다에서 싸워 이겨 오랜 세
월 흐른 지금 그 업적 기록하
니 네 분 충신의 절의 천추에
빛나리)

- 廟庭碑 건립 -

身殉爲邦英傑事

四忠節義萬年風

柳川庭堅廟庭碣

陟降精靈庶鑑通

(나라 위해 순절함은 영웅
호걸의 기상이니 우리문중 네
분의 충성 정의는 영구히 전
해지고 유친사 묘정에 비석
등 비바람에 우뚝 서고 그 정
령 내려 비쳐 우리 후손 보살
피네)

(癸亥 4月)

圭三(大宗會 理事)

고려말에 두 家門의 先祖분들
의 交分이 어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후손들
이 交友하게 된 善緣을 뜻 있
게 계승하자며 遁村先生의 詩
를 복사해서 보내주면서 그
감회를 자신이 時調로 지어
表現하며 동봉해 왔다.

"寄廉知申事"

(염지신사에게 보내는 시 3수)

夜直銀臺月半斜

朝廻日午下公車

當年鶴髮侍中宅

今是龍喉學士家

(달이 반쯤 기울 때까지 승
정원에서 밤늦게 일하고 아침
조회에서 돌아와 한 낙에 애
수레에서 내리네. 부친 당년
에 학발의 시중 막이었고 지
금은 승지벼슬의 학자 집이
네.)

清香荏苒影橫斜

多少看花馬與車

自恨老夫尋不得

一枝能折寄山家

(맑은 향기 은은하고 그림
자는 비겼는데 많은 사람은
말 타고 수레타고 꽃구경하는
데 한 많은 노부는 전원에 있

佇立東邊更回首

三峯如畫是王京

(십여년의 공명인들 무엇을
이뤘다 하리. 병들어 강변사
리 백발만 무성한데, 동쪽 언
덕에 서서 인간사 뒤돌아보니
삼봉은 그림 같고 이 곳이 왕
경이구려.)

이 詩를 읽으니 마치 陶潛
의 歸去來辭가 連想되고 中年
에 벼슬길 버리고 모진 世波
에서 수고하고 갈등하는 삶의
무상을 한탄하며 優茲自適한
先生의 心鏡을 엿 보듯하다.
이 詩句를 쓴 遁村先生
(1327~1387)의 初名은 李元
齡 後에 譚 "集"이며 遁村은
號로서 廣州李氏 生員公 譚
"唐"의 次男으로 고려 忠穆王
代에 及第하여 벼슬이 判典校
寺事에 이르렀으나 辛旼의 專
構을 비판한 것이 罪가 되어
老父를 모시고 廣州땅(지금의
서울 둔촌동)에 은거후 다시
永川으로 피신했다가 辛旼
이 죽은 후 開京 龍首山下 玄
化里 옛집에 귀가하였으나 이
후 벼슬에 뜻을 버리고 川寧
뒷면에

書院考

先祖분들의 神主(位牌)나 影幀을 모신 곳을 祠宇 혹은 祠堂이라 하며 이 보다 施設이 큰 곳으로 書院이 있다. 書院에는 二大機能이 있었던 바 그 하나는 선비들이 모여 名賢과 忠節로 이름 높은 烈士를 모셔 제사 지내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節義와 德望을 본 받고자 修學을 하는 장소이다.

鄉校가 孔子님을 모시며 地方에 있던 官立學校인데 반해 書院은 先賢을 모시며 地方에 있던 私設教育機關이었다.

燃藜室 記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書院은 中宗 38년(1543년) 豊基郡守로 부임한 周世鵬이 고려

앞면에서

縣(지금의 여주 이포)에 落鄉하여 閑居하다 禽王 13년 丁卯에 逝去하셨다. 後裔로는 曾孫代에 재상급 八兄弟분(八兄)을 비롯하여 明宗代의 清白領相 東臯 李浚慶, 宣祖때의 名政丞 漢陰先生등 집안에英才분들이 줄을 이었다. 遁村先生의 위 詩句는 우리 門中 族譜(1704년 甲申譜)와 隆

말 우리나라에 朱子學을 普及시킨 安珦의 옛 집터인 이 곳에(지금의 경북 宋豐郡 順興面 石稿里) 祠堂을 짓고 先生의 후손이 살던 서울의 종가에서 影幀을 모셔와 奉安하고 白雲洞 祠堂이라 했고 이어서 여리 선비들의 도움으로 서적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朱子學의 강론을 하면서 이를 白雲洞 書院이라 하였다.

이 書院은 明宗 5년(1550년) 이 곳 郡守로 退溪先生이 부임하면서 教育에 더욱 힘쓰고 書院의 格을 높이고자 宋나라의 고사에 따라 서원이나 나라에서 認定해 줄 것과 제반 政策的 지원을 요청하자 王이 親筆로 된 “紹修 書院”이

서 眇이 伏誅되는 1371년 이후인 것으로 생각되며 경남 거창에 있는 우리 門中의 霞山 書院(지금은 永幕齊-梅庭先生(1415~1480)을 每年享祀)에는 廣州李氏의 東臯先生(1499~1572)과 漢陰先生(1561~1613)이 써 주신 告由文과 贈和詩가 있는 것으로 보아(太學居齋實記) 두 門中의 交和는 恪別 했다고 믿어진다.

란 扁額을 내리고 약 30結의 免稅田畠과 어, 염전, 서적, 노비들을 받아 公認된 賦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대체 鄉校에는 位牌를 모시는데 書院에서는 선비들로 하여금 先賢의 모습을 직접 배알케 하여 승배케 하려는 의도에서 影幀을 모시는 곳이 많았고 建物은 시대와 서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처음에는 教育施設이 중요시 되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는 祭享시설 중심으로 변천되었다. 건물의 구조도 궁궐이나 사찰의 건물이 雄壯했던 데 비하여 서원들의 건물은 꾸밈이 없고 주위 경관과 어울려 소박하고 검소한 시설이 많았다. 건물의 구성을 보면 講堂은 院生들이 修學하는 곳으로 書院 안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齋室은 院生들이 起居하던 곳으로 강당을 向해 오른쪽을 東齋라 하여 선배원생들이 기거하고 왼쪽은 西齋라 하고 후배들이 기거했다. 祠堂은 위폐나 영정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으로 한 분만을 모시는 單享과 여러 분을 모시는 配享이 있다. 藏版庫는 書庫로서 책과 경판등의 教材를 보관하던 곳이며 祭器庫는 祭享때 쓰던 祭器, 祭服등을 보관하고 祭

평안도 16, 함경도 12개소의 순위를 分布되었고 이 밖에도 군소서원 까지를 계산하면 천여 개소가 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많은 서원은 濫設로 품격이 떨어지고 民弊의 온상이 되자 증설을 금하기도 하고 철패도 시켰지만 실효가 없자 興宣大院君이 집권하자 서기 1871년에 과감히 정리하여 총 수를 47개소로 축소하였는데 이 중 祠宇를 제외하면 경상도 10개소 경기 8, 전라 4, 강원, 황해도에 각 2개소, 함경들 1개 계 27개소뿐이었다. 이러한 서원은 향촌에서 先賢을 모시고 여럿이 修學하는 것이나, 그 運營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는 姓氏들의 門中이었으며, 書院에는 요즘의 定款이나 會則이라 할 수 있는 宗規가 있었는데 서원의 任員이라 할 수 있는 구성원을 보면 院長 1, 院貢 1, 講長, 訓長, 祭長, 鍾綱, 都有司, 副有司, 有司, 直月, 直日, 免掌, 掌議등의 職分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옛 書院들이 文化遺產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서원 建物보다는 거기에 所藏된 서적과 경판 등이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서원의 文庫를 보면,

(양평 趙昱) 玉山(월성 李彥油) 陶山(안동 李滉) 德川(산청 曹植) 筆巖(장성 金麟厚) 등이다.

우리 門中에서各地에 있는 遺蹟에서 “書院”으로 이름하였던 곳으로는

錦江書院 羅州 新月里 鷹峯下에 있었으며 梅軒, 菊坡, 松隱, 閉窓, 蕊谷, 錦齋, 錦圃公을 配享하며 領相 朴淳, 승지 洪益聞 大司諫 宋能圭, 左承旨 洪翼燮의 享祀文이 있고 지금은 錦江祠로 남았다.

梁山書院 寶城 文德面 梁山下에 숙종 37년 辛卯(1711)에 건립되어 承旨 洪秉毅이 지은 享祀文이 있고 梅軒, 菊坡, 梁山, 竹林公을 配享하였으며, 고종 5년 戊辰에 書院이 毁撤되자 익년 己巳에 清溪影堂을 건립하여 남는다.

龜淵書院 清道 錦川面 長田里 盤溪山 西麓에 있었으며 梅軒, 菊坡, 參判 訓正公을 配享하였고 지금은 龜淵祠로 남는다.

霞山書院 居昌 南山面 月坪에 있었으며 梅軒, 菊坡, 進士公을 配享하였고, 崔薰의 告由文과 東臯, 漢陰 두 相公의 享祀文과 贈和詩가 傳하며 사실이 太學居齋實記에 있다.

忠敬書院 羅州 三榮洞에

熙 2년 戊申 12月에 發行된 “曲城 廉氏 世稿”(跋文 琴詩述序 李彝寧)에도 등재된 詩로 菊坡公께 주었다는 詩三首는 遁村先生雜詠(序文 河峯)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知申事인 清江公께 준 글이고 詩句中 “柳微斜”는 世稿에서도 “柳微斜”로 되어 있다. 글귀의 調和로 보아서 취하여 춤춘다는 “微”字나 탄미의 뜻인 “欹”字는 모두 뜻과 운치가 通하는 글자로 보여나 原本대로 “微”字로 해야 좋을 듯하다.

1992년에 發行한 廣李會報記事에 의하면 先生께서는 麗末의 三隱과는 벗을 삼고 無不敬重 하셨다고 하였는데 忠穆王代에(1344~1348)에 及第한 先生은 비록 牧隱보다는 한 살 위이지만 李穡이 及第한 1353년, 東亭公이 及第하신 1357년 國隱이 及第한 1360년 보다 먼저 及第하였기에 선배인 듯 하지만 三隱과 벗이라면 東亭公과도 交友之間으로 추정되며 위 詩등은 先生께서 隱遁했던 時期 卽辛毗이 활약한 공민왕 14년에

어찌되었건 우리 先祖분들에 關한 文獻이 他門中 어른의 遺稿에서 格 높은 詩句로 확인되니 반갑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요즘에 와서 先祖분들의 因緣이 後孫들에게 友情으로 이어지니 소중하고 情이 깊어지는 지난날의 友情이 값지고 또 앞으로 더욱 서로 돋고 격려하여 서로의 家門을 빛내야 한다는 使命感이 무겁다. 李兄도 이러한 心裏를 “이 어이 奇緣일고 하늘의 뜻이련가 웃소매만 스쳐도 억겁년의 인연이라는데 육백년전 交遊가 모진 風霜 겪으면서 그 자손들 이제와 呼兄呼弟하고 있네”라고 침가 해 준 時調와 “못 다하신 선조들의 우정 다시 한 번 꽂 피우고 세세 년년 相生의 길 걸으며 길이 길이 이어가세”라는 結句가 더 없이 情겹게 느껴진다.

戊寅仲夏

大園 弘周(大宗會 副會長)

需등을 마련하는 곳이고 樓閣은 院生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쓰이던 건물이며, 이 밖에 書院正門에는 外三門이 있고 祠堂으로 드는 곳에 內三門이 있었다. 또 各建物의 배치 형태는 대체로 앞쪽에 教育시설을, 뒤쪽에 祠堂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書院에 모셔진 人物을 빈도수에 따라 살펴보면 文廟에 모신 孔子를 제외하고 李滉, 宋時烈, 李珥, 朱子 등 순위로 20여개소에 모셔져 많은 편이고 다음이 趙光祖, 李彥油, 鄭述, 鄭夢周, 金宏弼의 순이다. 대체로 西人계통에서는 이이, 성흔, 송시열, 김장생 등이고 南人계열에서는 이황, 조식, 정구, 유성용 등을 모시는 경향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에서는 이황, 송시열을 충청도 이이, 주자는 황해도에서 주로 모셨고 增補文獻 備考(고종 때 朴容大등에 의해 편찬)에서 조선 시대에 있던 우리나라의 書院數를 보면 약 378개소로 경상도에 156개소, 전라도 66개소, 충청도 57, 경기 50, 황해 20,

옥산서원(월성)1572년 창건
866종 4111책 소장
도산서원(안동)1574년 창건
907종 4338책 소장
병산서원(안동)1613년 창건
1071종 3039책 소장
필암서원(장성)1590년 창건
132종 595책 소장
도동서원(달성)1573년 창건
95종 529책 소장 등이고,
이중 이름 난 서원은

紹修(영풍, 安珦) 忠烈(용인
鄭夢周) 禮林(밀양 金宗直) 道
東(현풍 金宏弼) 藍溪(함양 鄭
汝昌) 深谷(용인 趙光祖) 雲溪

近년 세워진 書院으로 忠敬, 菊坡, 東亭, 清江公을 配享하고 있다.
위와 같은 現實과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 세대는 이를 어떠한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保存하고 管理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표설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찰해 보았다.

-林內樵夫-

편집후기

경제한파, 어지러운 정치판, 풍수해 등 모진 世波의 고된 세월이다. 4~5개월 후면 大宗會도 全任員이 개선되고 새 살림을 계획하며 출발하게 된다. 온 국민이 개인생활도 어려우니 각지역에서의 선조님 향사도 예년보다 더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이 시절의 우리 종인들은 보다 힘내고 단결 화목해서 가정은 물론 大宗會도 분발 할 때다.

문중을 위해 더 힘쓰실 일

가문의 성원이 아쉽고 짚은 새 일꾼들의 의지도 기다려진다.

늦은 가을밤 대종회를 위해 수고 하셨던 가신 분들의 생각 간절하고 이 간단한 宗報를 내면서도 원고의 수집과 광고모집 인쇄비의 준비 등 순탄치는 못 했다. 이 속에서도 원고와 자료주신 圭三, 弘周, 南燮, 敏燮, 基瑢氏의 성원에 깊은 감사 드린다.

-편집인-